

교회소식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새 책 : 김기석 목사의 새 책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꽃자리)가 나왔습니다.

권준호 씨와 유혜진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1일(토) 오전 11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시 104:10-18

오늘 식당 봉사 :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장미경 박경원 송인선 송동준
다음 주 식당봉사 : 진정숙 원은이 류형민 강경화 김인순 이은경 이용석 최형균

오늘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56-6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환경부

커피 판매 봉사 : 3남선교회

떡 대 접 : 양상철 박재란 (온유 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묘
상
소
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성령강림 후 3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9.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갑작스런 무더위와 고된 일상으로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늘 귀중한 생명을 잃으면서도 잘못됨을 고치지 못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험한 일자리로 내모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서로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호12:5,6 인도자
- ♣ 교 독 문 43. 시편 99편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 2부응 답 송 찬양대
- 2부찬 양 397. 주 사랑 안에 살면 다 함께
- ♣ 성경봉독 호 4:1-10 I. 인도자
II. 이은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여호와와 나의 목자 찬양대
- 말 씬 이 땅에 있는 것과 없는 것 김기석 목사
- 거둬 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요한	원은이	공종철	구자경	김경해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희민	김희우
김나름	김성순	김영희	김윤수	박상호	김인결	김문영	김재흥	김희영	김희정	김정민	김정민
이혜령	김지윤	정영희	김해선	남명진	김애정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정순	박정순	박정순
신연화	박석희	조함미	방문성	박혜경	방수명	배삼순	배재경	이유지	이재현	이재현	이재현
송형운	하미림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왕수연	김수연	김동천	이민범	공재현	공재현	공재현
이계선	이소순	이광석	이경희	이광섭	김수연	이유선	이재삼	전정복	전정복	전정복	전정복
류정욱	이성범	권현숙	이영옥	장소현	장영숙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정복순	정복순	정복순
임주빈	최현옥	최옥분	장최훈	박소원	장영숙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정복순	정복순	정복순
정현선	유병선	최옥분	최훈	최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허명선	홍성식	이유리	홍춘숙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황원순

감사헌금

강석원	곽상준	최경미	김인하	김종락	박영신	김해선	김향자	박병구	박숙미
박재영	이현정	신영신	안정준	이계선	이소순	이고임	이미정	이범석	류정욱
이부곤	이인웅	임선양	신현숙	임설희	정현모	권정연	조명화	최미선	
정선희	가죽	무명13							

녹색꿈헌금

박숙미 주현철 강미선 무명3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박혜경 배삼순 송남필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조순덕	청 파1속	김재흥	교회
안 디 옥	최경미	차혜심	청 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곽혜자	청 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김윤수	청 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권미숙	청 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이봉옥	청 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관희	윤수진	청 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청 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안현숙	청 파9속	김인걸	
			청 파10속	장영숙	

사랑의 빵 저금통

예배실 입구에 작은 저금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저금통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우리 사회의 아이들을 위해, 또한 굶주리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고 전쟁과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세계도 처의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정성과 마음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저금통을 준비하면서 교우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외에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그 안에 책상서랍 한쪽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전들이 담겨질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아이가 이웃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을 담아 한 푼 두 푼 모아온 동전이 담기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교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빵 저금통 모금을 통해 아이들이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화부

※동전이 모아진 저금통은 예배실 입구 회수함에 넣어 주세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2부찬양	양	459. 누가 주를 따라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거짓과 미움과 우상숭배를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이 땅의 악함에 대해 불평할 뿐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조항범 권사	곽상준 집사	

6월	1부 영접위원	강세기 이소애
	1부 헌금위원	김민화
	2부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황현성 한성건 진정숙 이오복 이현순
	2부 헌금위원	박홍재 유경순

마주 잡을 손 하나

...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루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가만가만 나누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차창 밖 풍경에 자꾸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아카시아 꽃과 더불어 바람에 뒤편치는 나뭇잎들이 은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잘 구획된 농지에 이양기를 이용해 모를 심는 농부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눈에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내기를 할 때면 덩달아 흥분상태가 되어 눈두렁 여기저기를 종작 없이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이 못줄 잡는 일을 맡겨주면 제법 일꾼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품앗이하러 온 마을 어른들이 허리를 굽히고 열을 지어 모를 내다가, 목청 좋은 아저씨 한 분이 노동요를 선창하면 노래는 금방 합창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조금 힘들다 싶으면 흘깃흘깃 다복술 우거진 야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새참을 담은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와 아주머니들이 모습을 드러내면, 제법 의젓한 일꾼으로 보이고 싶어 더 열심히 일하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미를 눈치 챈 어른들은 ‘○○○도 상일꾼이야’라고 놀림 삼아 칭찬해 주셨지요. 새참을 드신 어른들이 공동묘지의 무덤을 베고 잠시 잠을 청할 때면, 뚝방에 가서 물방개를 잡기도 했습니다.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을 보면 살포한 정을 나누던 마을 공동체가 다 깨져나간 오늘의 살림살이에 어지간히 지친 것 같습니다. ...

하늘은 청명하고, 바다 물빛 또한 깨끗했습니다. 적절히 서늘한 바람은 안면도 바닷가를 조용히 산책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안겨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소년 소녀들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자연 휴양림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하는 이들은 솔바람 소슬하게 부는 곳에 자리 잡고 앉아 풍경을 즐겼고, 어렵더라도 산길 걷기에 도전한 분들은 서로의 손을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

습니다. 오름길에 허청거리는 어르신네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리기도 하고, 잘린 채 놓여 있던 나무 다발을 헤쳐 지팡이로 삼을 만한 것을 찾아내 연세가 가장 높으신 어르신 손에 쥐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 그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걷는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손이 아름답던 한 사람을 압니다. 예수입니다. 그는 나병에 걸려 사랑하는 이들과의 접촉의 기쁨을 포기한 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바다 물결 속에 잠겨들던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끌어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깨어났습니다. 그 손을 생각할 때마다 강은교 시인의 <당신의 손>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 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이 슬픔의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강은교, <당신의 손> 중에서)

... 며칠 전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계신 분을 찾아갔습니다. 말을 하실 수 없었지만 얼굴 가득 반가운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힘을 잃어 축 늘어진 손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나마 감각이 조금 남아 있는 손을 잡자 조금씩 힘을 주어 고마운 내색을 하셨습니다. 손을 마주잡은 채 나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의 손을 통해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달라”고.

지리산에서 세상살이를 마감한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의 마지막 대목이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고통과 설움의 땅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면 그 끈질긴 희망의 근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그렇습니다. ‘마주 잡을 손 하나’가 바로 희망입니다. 먼 곳에 계시지만 우정의 손을 내밀어 봅니다.